

# ‘우리 철학’은 역사적 성찰에서 시작한다

《우리에게 철학은 무엇인가》 《한국 사회철학의 수용과 전개》

이진우 | 계명대 철학과 교수

언제부터인지 ‘우리 철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 목소리는 어떤 의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지만 그 뜻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모든 개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모습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공동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하나로 묶여 있는 ‘우리’가 우리만의 고유한 철학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런 주장과 요구는 ‘우리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에 당혹해하며, ‘무엇이 우리 철학인가?’라는 질문을 접하면 자칫 공허한 수사로 전략할 위험에 빠지게 된다.

### ‘우리 철학’을 위한 생산적 토양 마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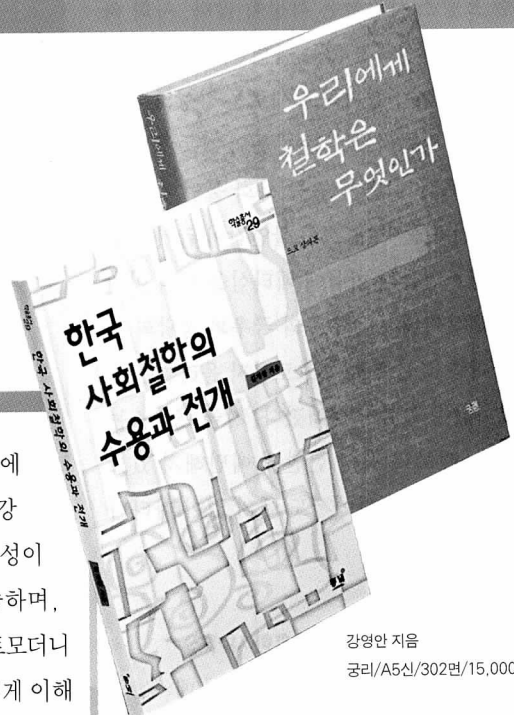
이런 위험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아마 우리 철학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비판적 반성일 것이다. 여기서 세계의 역사를 철학의 역사로 서술한 헤겔의 방법을 흉내낼 필요는 없지만, 철학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당대의 핵심 문제인 자유에 관해 독창적 철학을 제시할 수 있었던 그의 정신을 닮을 필요는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 서양철학의 수용과정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두 권의 책이 발간된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한국 근대 철학사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철학’을 둘러싼 감정적 거품을 제거해 동양과 서양의 대립을 중성화함으로써 우리 철학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생산적 토양을 마련했다는 것이 이 책들의 더 커다란 미덕일 것이다.

강영안과 김재현은 모두 근대 한국철학이 서양철학의 수용과정이었다는 사실로부터 출

발해 서양철학을 한국적 문제의식 위에 수용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강영안은 서양을 대변하는 과학적 합리성이 어떻게 수용됐는가를 간결하게 서술하며, 또 한국철학자들이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긴장 속에서 전통과 이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예리하게 분석한다. 그렇지만 그의 주된 관심은 이 책의 첫 장과 마지막 장에 집중돼 있다. 이 책의 제목을 암시하는 첫 장에서 그는 “한국의 첫 철학자들에게 철학은 무엇이었나?” 하는 질문을 던지고 “서양 철학은 초기 한국 철학자들에게 현실의 물음을 묻는 수단이고 해답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대답한다. 서양철학이 우리의 삶과 현실로부터 유리돼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와는 달리, 초기 한국 철학자들은 서양 철학 속에 담긴 사상과 문제의식을 전혀 낯설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다.

### 한국철학은 근대 일본의 번역어에 빛지고 있다

강영안은 그 이유를 언어에서 발견한다. 그는 《우리에게 철학은 무엇인가》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의 철학용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근대 일본에게 번역어의 빛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주장한다. 만일 우리가 쓰고 있는 학문 용어들을 마치 총독부 건물처럼 일거에 철거한다면, 우리는 철학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철학의 수용과 전개’ 과정을 서술하는 김재현도 이 점에 동의한다. 그는 초기 사회철학자들이 “현실적·실천적 기반을 강조하고 문제의식에 따른 연구”를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서양철학 연구의 축적과 현실에 대한 문제의



강영안 지음  
공리/A5신/302면/15,000원

김재현 지음  
동녘/A5신/318면/12,000원

식이 합쳐져 이제 자생적·주체적 철학함의 학문적 토대나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한국 근대철학은 우리의 문제를 서양의 언어로 사유하고 서술한 것이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문제를 담아낼 수 있는 우리만의 철학적 언어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김재현은 “남북 대립의 극복과 문화적 통일을 위한 철학계의 과제”를 문제의식으로 내세우고, 강영안은 한국철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휘문제”를 부각시킨다. 그러나 두 철학자가 모두 국내의 철학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문제와 철학 언어를 가질 수 있는 날을 앞당기지 않겠는가? 철학을 한다는 것이 언젠가는 우리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글쓰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철학은 이처럼 근대에 관한 역사적 성찰에서 시작한다. ■

**이진우** 교수는 연세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독일 아우구스부르크대학에서 철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계명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정치철학》 《탈현대의 사회철학》 《도덕의 담론》 《이성은 죽었는가》 《한국 인문학의 서양 콤플렉스》 《이성정치와 문화민주주의》 《지상으로 내려온 철학》 등을 펴냈고, 《책임의 원천》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인간의 조건》 《덕의 상실》 등을 번역했다.